

【 국내금융 뉴스 】

8월 경상수지, 196억달러 흑자 기록

□ 한국은행의 국제수지 잠정치 발표에 따르면 2010년 8월중 경상수지는 195.6억달러 흑자를 기록하였으며 흑자규모는 전월의 58.2억달러에서 20.7억달러로 축소된 것으로 나타남.

- 상품수지는 기업의 여름휴무 등 계절적 요인으로 수출이 전월보다 크게 줄어들어 따라 흑자규모가 전월의 71.6억달러에서 36.9억달러로 축소됨.
- 서비스수지는 여행 및 광고비 지급 증가 등으로 적자규모가 전월의 15.0억달러에서 17.8억달러로 확대됨.
- 소득수지는 배당수지를 중심으로 흑자규모가 전월의 4.4억달러에서 6.1억달러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남.
- 경상이전수지는 대외송금 지급 증가로 적자규모가 전월의 2.8억달러에서 4.5억달러로 확대됨.

□ 발표에 따르면 2010년 1~8월중 자본계정은 10.0억달러 유입초*를 나타냈으며 2010년 8월중 자본계정은 거의 균형수준을 보임.

- 직접투자는 해외직접투자가 전월보다 줄어들어 따라 유출초 규모가 전월의 19.0억달러에서 12.5억달러로 축소됨.
- 증권투자는 외국인채권투자가 줄어든 데다 외국인주식투자는 소폭의 유출초를 나타냄으로써 유입초 규모가 전월의 86.8억달러에서 14.1억달러로 축소됨.
- 파생금융상품은 전월의 0.8억달러 유출초에서 0.9억달러 유입초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남.
- 기타투자는 일시 단기대출 및 무역신용도입 순상환의 축소 등으로 유출초 규모가 전월의 65.0억달러에서 5.2억달러로 축소됨.

* 순유출입액 기준으로 (+)는 유입초, (-)는 유출초를 말함.

□ 2010년 1~8월중 준비자산은 200.0억달러 증가했으며 8월중 준비자산은 15.1억달러(7월은 60.2억달러) 증가함.

(2010년 8월중 국제수지(잠정), 한국은행, 9/29)